21세기 이후 안무의 실제
Choreographical Practices in the 21th century

김 은 정, 조 성 희*
예술창작 날좀보소, 강원대학교*

Kim eunjung, Cho sunghee*
Watch Me, Kangwon National Univ.*

요약

본 연구에서는 21세기 무용예술 창작환경변화에 따른 실제 행해지는 안무법들을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안무의 사전적 의미, 학술연구에서의 안무의 개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2000년도 이후 댄스포럼 잡지 중 5년 단위로 잡지를 선정하여 이로부터 안무가들의 인터뷰를 수집 후 안무방법에 대한 언급이 있는 기사들만을 추출 하여, 21세기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안무의 실제에 대해 정리하였다. 안무의 사전적 개념은 17세기 안무의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저작권에서도 동작의 형으로만 그 범위를 제한하였다. 20세기에 들어 움직임의 창작 뿐만 아니라 작품의 연출에 까지 그 범위가 확장되었다. 21세기의 안무가들은 사전적 안무의 개념에 집중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주로 안무 작업 시 작품 전체의 연출에 집중하였으며, 움직임은 주로 무용가들과의 소통을 통해 창작하였다. 융·복합 환경으로 변화해가는 창작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였을 때 지식재산권의 문제를 고려한 안무 개념의 고찰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한다.

Ⅰ. 서론

본 연구에서는 21세기 무용예술 창작환경변화에 따른 실제 행해지는 안무법들을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세기 후반 국내에서는 안무에 대한 정의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였으나 21세기에 들어 안무가별 안무법에 대한 정의에 대한 연구나 안무법의 특성들에 대한 연구들에 국한되어있다. 따라서 이 안무법 연구들과 현장에서 활동 중인 안무가들의 안무에 대한 개념들을 정리해보았다. 이를 위해 2000년도 이후 댄스포럼 잡지 중 5년 단위로 잡지를 선정하였다. 진행된 안무가들의 인터뷰를 수집 후 안무방법에 대한 언급이 있는 기사들만을 추출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현재 현장에서 안무를 하고 있는 무용가들이 가진 안무에 대한 개념들을 통합하여 21세기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안무의 실제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Ⅱ. 안무의 정의

1. 안무의 사전적 의미

국어사전에서는 안무를 '가곡, 가요에 따르는 무용의 형이나 진행을 창안하고 그것을 연기자에게 가르치는 일'이라고 정의한다[2]. 국내 저작권법에서는 안무의 개념에 대해 규정짓고 있지 않으나, 연극저작물에 나타난 극적 요소나 시청각적 요소를 완전히 배제한 '순수 인간의 몸짓의 표현'으로만 안무를 한정하여, 안무가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동작의 형(型)' 혹은 "신체적 동작과 몸짓을 창조적으로 조합·배열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2].

2. 학술연구에서의 안무의 개념

안무는 무용의 개념이 바뀜에 따라 그 의미가 바뀌었다. 17세기 '발 움직임에 관한 도표적 상징(choréographie)', 18세기의 choréographie는 더 이상 '무용을 구성하고 창안하는 기술(Art)'라는 의미를 가졌다. 안무는 20세기에 들어 하나의 무용작품이 완성되어 무대에 오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의미하게 되었다[3].

Ⅲ. 현장에서의 안무실제

움직임 구성에 대한 언급이 있는 인터뷰기사들은 33건으로 그중 3건의 기사에 실린 안무가들만의 동작을 구체화 시켜 무용가들에게 습득하도록 하였다. 대부분의 안무가들은 주로 작품의 "큰 그림"을 그리는데 치중하고 무용수와의 소통을 통해 움직임을 형성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술연구를 통해 나타난 20세기에 형성된 안무의 개념 즉, 동작을 만들어내고 전체를 구성하는 일까지도 포함하는 안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용수들과 움직임을 구성한 사례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먼저, 사전에 워크숍을 통해 움직임 리서치를 하는 경우이다. 작품구성에 들어가기 전 움직임 창작에 필요한 개념을 설정하고 무용수들의 움직임 리서치를 통해 동작을 구성하였다. 둘째, 안무가와 능동적인 소통을 통

한 즉흥으로 움직임을 구성한 사례가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놀이를 통해 움직임을 설정하거나 작품의 아이디어에까지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 셋째, 움직임을 제시하고 무용수 스스로 표현과 질감을 찾도록 하는 사례도 많이 나타났다. 이 경우 무용수의 기본적인 역량이 갖추어진 경우가 많았다.

Ⅳ. 결론

본 연구에서는 21세기 이후 국내무용예술현장에서 행해지는 안무의 실제를 알아보았다. 안무의 사전적 개념은 17세기 안무의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저작권에서도 동작의 형으로만 그 범위를 제한하였다. 20세기에 들어 움직임의 창작 뿐만 아니라 작품의 연출에 까지 그 범위가 확장되었다. 21세기의 안무가들은 사전적 안무의 개념에 집중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주로 안무 작업 시 작품 전체의 연출에 집중하였으며, 움직임은 주로 무용가들과의 소통을 통해 창작하였다. 큰 의미의 안무가 즉 연출가로서의 역할을 한다. 융·복합 환경으로 변화해가는 창작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였을 때 지식재산권의 문제를 고려하여 안무개념의 고찰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무용저작권을 연극저작물로부터 분리하여 무용창작물만의 특수한 지식재산의 특성을 고려한 법령제정을 하는데 뒷받침이 되도록 해야한다.

■ 참 고 문 헌 ■

[1] 김근우 “안무의 저작물성에 관한 연구”, 지식재산연구 Vol,9, No.2 pp.257-278, 2014.
[2] 김화숙, “안무의 요소에 관한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지, Vol. 6, pp.7-26 , 1996.
[3] 안윤희, Choreography의 역사적 변천에 대한 고찰 : 유형별 비교를 통한 접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1990.